

여장군소설 주인공의 역할 모델 연구*

조용호**

— <차 례> —

1. 들어가는 말
2. 중국 역사서 속의 여장군 형상과 여장군소설
3. 중국 소설 속의 여장군 형상과 여장군소설
4. 맺는 말

<국문초록>

지금까지 여장군소설 형성의 외래적 동인으로 <설인귀전>의 영향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나는 중국에는 실존했던 여장들이 있었고 소설에도 여러 명의 여장이 등장하기에,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이들의 존재가 실제로 여장군소설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우선 역사서에 기록된 여장군들의 형상을 검토했다. 조선조 문인들의 기록에서 중국의 여장들을 찾고, 그들이 어떤 행적을 보였으며 그것이 우리나라 소설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했다. 그 결과 중국의 평양공주, 세부인, 진양옥의 행적은 특히 여장군소설 발생의 토대가 되었다고 보았다. 황송하가 男裝하고 살아간 것도 여장군소설 주인공의 형상화에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했다.

다음에는 중국 소설에 등장하는 여장들의 활약상을 검토하여, 그들이 여장군소설 주인공의 역할 모델이 되었음을 확인했다. 그 가운데 <설정산정서>에 등장하는 번리화는 남편을 거느리는 원수로 활약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모델이다. 목계영을 비롯하여 <양가장연의>에 등장하는 여장들이 집단적으로 보여준 활약상도 여장군소설의 주인공을 형상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설인귀전> 연작과 <양가장연의>는 여장군소설의 구조나 전반적인 인물구성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것임(NRF-2012S1A8A1052376).

** 목포대 국문과 교수

은 물론 세부적인 측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중국의 문헌들이 미친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여장군소설의 작가를 추정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주제어 여장군, 여장군소설, 이수광, 이덕무, 평양공주, 세부인, 진양옥, 황송하, <설정산정서>, <설강반당>, <양가장연의>, 번리화, 목계영.

1. 들어가는 말

20세기 말까지도 한국에서 여장군은 상상으로나 가능했을지언정, 현실에서는 실제로 목도한 적이 없는 인물형이었다. 그런데도 여성이 대장이 되어 전장에 나아가 불멸의 전공을 세우고 국난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고전소설들이 적잖이 존재한다.¹⁾ 우리 역사에 여장군이 등장하여 활약한 실례가 없다는 점에서, 소설 속에 형상화된 이런 인물의 존재는 문학의 소재사적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인물론의 측면에서도 여장군이란 존재는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일찍부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학자들은 일찍부터 이런 소설들의 출현 동인과 배경 및 원천에 대해 검

1) 거개의 연구자들이 이런 소설을 영웅소설의 한 갈래로 보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귀속 장르와 명칭들이 갖는 문제를 거론하고, 소설 속에서 ‘男裝’, ‘戰功’, ‘將軍’ 등의 어휘들이 그 변별적 특징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들 작품을 별도의 장르로 변별할 것과 그 명칭으로 여장군소설을 사용하자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조용호, 『여장군소설의 개화기적 변화상』,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집, 2011, 239쪽, 각주 2)번. 설사 그 명칭이 포괄할 수 있는 소설의 수가 여성영웅소설이란 명칭이 포괄할 수 있는 소설의 수보다 확연히 감소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논의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기에서도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토해왔다. 일찍이 김태준 이 영웅소설에 미친 <설인귀전>의 영향 가능성을 언급한 이래로,²⁾ 7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서대석은 여장군소설을 군담소설에 편입시키고 중국 소설들 중에서도 특히 <설인귀전>이 군담소설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밝혔다.³⁾ 또 성현경은 이것들을 ‘女傑小說’이란 독립된 명칭으로 부르면서 특히 여장군소설에 속하는 작품들도 중국소설 <설인귀전>의 영향으로 인해 생겨났을 가능성을 타진했다.⁴⁾ 이처럼 영웅소설 일반에서 출발하여 여장군소설로 구체화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여장군소설의 발생에 <설인귀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는 거의 정설로 굳어지게 되었다.⁵⁾

2) 김태준은 숙종 연간을 문예의 황금시대로 보고 이때 <소대성전> 등 패장(覇將)의 전기(傳記)가 성행했으며, <서주연의> 등 중국소설도 들어와 언문으로 필사된 적도 있고, <설인귀전> 등이 번안되어 영웅소설의 창작과 유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하였다.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103~112쪽.

3) 서대석, 『군담소설과 중국소설』,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325~390쪽.

4) 성현경은 ‘여걸소설’을 (1) 여성이 대원수가 되어 남성을 부원수로 부리는 류, (2) 남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장수 노릇을 하는 류, (3) 여성이 남성 밑에서 부장 노릇을 하며 그를 보필하는 류, (4) 여성이 남성과 함께 출전하지 않고 배후에서 도술로 남성을 도와주는 류로 나눈 뒤, 그 중에 (1)번에 속하는 작품들이 <설인귀전>의 영향에 의해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성현경, 『여걸소설과 <설인귀전>』,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출판부, 1981, 227~279쪽 참조. 그의 분류 가운데 내가 여장군소설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히 (1)에 속하는 작품에 한정된다. 하지만 본고에서 ‘여장군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때는 (2)에 속하는 작품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출전하고 전공을 세우는 여장군의 실제 역할은 (1)에 속하는 작품의 주인공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대봉전>의 장희운(愛暉)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5) 이런 관점과는 달리 내재적인 동인을 검토한 논의도 적지 않다. 그리고 그 논의들은 대부분 남성을 능가하는 여성의 능력이 발휘되는 작품을 창작해보려는 욕구가 무르게 된 사회적 인식과 기반에 관심을 집중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예컨대 강봉근은 몇몇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나는 여성의 형상을 추출하고, 이런 삶을 산 역사적 인물들을 언급한 뒤 허난설헌과 같이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도 비극적인 삶을 산 인물의 생

그러나 거기에서 더 이상 진척된 논의를 펼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중국 소설 중에 여장군이 등장하여 활약하는 작품은 그 외에도 더 있고, 조선 중기 이후 많은 소설들이 들어와 우리나라의 소설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므로,⁶⁾ 더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의 사서에 기록된 여장군들의 존재를 도외시켰다는 점도 문제다. 중국에는 오래전부터 여장군으로 불리는 인물이 실재했었다.⁷⁾ 조선조 사대부들은 중국의

에 독자들의 꿈을 반영시킨 결과로 여성영웅소설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강봉근, 『여성영웅소설의 출현동인 일고찰』, 『素石 李奇雨先生 화갑기념논총』, 1986, 355~73쪽. 광정식은 작가(층)의 역할이나 집단 의식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와 새로운 가치관의 대두가 여성영웅소설의 출현에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동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했다. 광정식, 『여성영웅소설 출현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管見』,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총』 3집, 2001, 73~87쪽. 박일용은 사대부 부녀층이 새롭게 소설 독자층으로 급부상하여 이른바 가문 소설 양식을 배태하고, 그보다 하층의 소설 향유층이 등장하면서 영웅소설의 단조가 마련됐다고 하였다. 박일용,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관련 양상』, 『고전문학연구』 20집, 2001, 169쪽. 최혜진은 ‘규훈 문학’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형상이 순응과 회생을 위주로 하면서도 그 안에서 세계와의 갈등을 절실하게 담아내고 승리하는 측면을 다양하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른 시기의 여성 영웅의 형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최혜진, 『여성영웅소설의 성립 기반과 규훈 문학』, 『우리말글』 34집, 2005, 243~268쪽.

- 6) 물론 중국 소설들 가운데 여장군이 등장하는 작품이 모두 수입되어 읽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 있는 문헌적 증거가 없다고 해서, 여장군이 등장하는 소설들이 아예 수입되어 읽힌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오류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 물증이나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기로 한다. 실제로 <장국진전>의 구조와 인물구성에 대해서는 <설인귀전>보다 <楊家將演義>가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국 소설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조선조 문인들의 기록에서는 이름을 찾을 수 없고 기왕에 한국문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거론된 적도 없다. 한편 중국 소설이 한국 소설에 끼친 영향의 양상과 현황에 대해서는 장효현이 개략적으로 정리한 바가 있다. 장효현, 『한국 고전소설에 미친 중국소설의 영향사』, 『한국고전소설사 연구』, 고려대 출판부, 2002, 593~633쪽.
- 7) 1943년에 나온 『中國民族女英雄傳記』에는 상당수의 중국 ‘여영웅’이 실려 있다. 嚴濟寬, 『中國民族女英雄傳記』, 중경: 商務印書館, 1943. 여기에 기재된 인물 중에는 木蘭도 있는데, 그녀는 <木蘭辭>라는 문학작품에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정말로 실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여장군 소설이 나오기 이전부터 중국의 사서를 통해 그 여장군들의 존재를 인식해왔다. 한국 여장군소설의 출현에 중국의 사서와 소설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⁸⁾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결이 안 된 중대한 문제가 남아있음을 지적해야겠다. 아직도 여장군소설의 출현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⁹⁾ 만일 여장군소설이 <설인귀전> 유

존했던 인물이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설사 실존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으로서는 장수로 활약했다고 볼 수도 없다. 내가 거론하는 여장군은 적어도 한국의 여장군소설과 직접 관련이 있을 법하고, 조선조 문인들도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역사적 인물에 한정한다.

- 8) 여장군소설의 형성 동인을 찾을 때는 내재적 동인과 외래적 동인을 모두 검토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소논문에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하겠다는 것은 거의 만용에 가깝다. 한정된 학술지 지면도 그렇고, 과제의 규모 면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나는 여장군소설의 출현 동인 가운데 내재적인 것에 대한 논의는 기왕에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외래적 동인에만 관심을 집중하려 한다. 그래도 논의의 결과는 기왕의 것들보다 더 높은 개연성의 제시에 있지, 부동의 사실을 공포하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고백해야겠다. 사실 고전문학에서 외래적인 영향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높은 개연성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부동의 사실을 확정하는 데로까지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다. 영향관계에는 여러 직·간접적인 요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특히 고전문학 연구에서는 근거 자료들마저 충분치 않아 그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9) 이은경은 여성의식의 발전 단계에 따라 여성영웅소설의 유형을, 첫째 여성의식이 가장 미약한 단계로 여성의 영웅적 활약상이 가장 내에서 추진되며 여성주인공의 행위도 전통적인 여성상을 고수하는 것, 둘째 여성의 의식이 가부장적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여성의 영웅적 활동이 가정 외에서 진행되며 여주인공이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동하는 것, 셋째 주인공의 의식이 가장 심화 확대된 단계로 여성주인공이 기존 질서와의 정면 대립을 통해 전통적인 여인상에서 탈피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유형들이 전개사적으로 각각 전기·중기·후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방식에 의하면 여장군소설은 대개 2,3기에 속하게 되어 후대적인 형태로 분류된다. 그런데 설사 이런 유형 분류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이 구체적인 창작 시기를 알려주는 어떠한 증거도 될 수 없다는 점은 간과한 듯하다. 무엇보다도 소설이 이런 식으로 여성의식의 진화론적 발전 단계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차례로 창작되었다고 보는 발상

입 이전부터 창작되고 있었다면, 그 작품으로부터의 영향을 주장했던 선학들의 견해는 공론이 되어버린다. 여장군소설이 창작된 시점이 17세기로 소급된다면, 중국 소설이 수입되어 읽히게 된 시기보다 한국 소설이 먼저 출현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성현경은 여장군소설의 출현 시기를 숙종 연간까지 끌어올린 이전 연구자들의 견해를 반박하며, 18·9세기로 수정하기도 하였다.¹⁰⁾ 실제로 18·9세기는 우리 문학사에서 다양한 장르의 소설들이 폭발적으로 창작되고 유통된 시기라는 점과 그 양식적 특징을 고려할 때, 여장군소설도 대략 이 시기에 나타났다고 보는 견해에는 개연성이 있기에 그 견해를 그대로 수용한다.¹¹⁾

방법적으로는 중국의 역사서와 소설에 나타난 여장군들의 형상을 충실히 정리하고, 조선조의 작가들이 거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거나 여장군소설의 창작에 활용했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비교문학이라는 접근 방식을 표방하지는 않을 것이며, 여장군소설 주인공의 형상화에 중국의 문헌에 나오는 여장군들의 성격과 행적이 어떻게 역할 모델로 기능했는지를 주로 살펴보려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남성 인물

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은경, 『후기 여성영웅소설 연구』, 충북대 석사논문, 1992.

10) 성현경, 앞의 글 참조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여장군소설들은 대개 19세기 후반 이후에 나온 것들이라서, 사실 18·9세기라는 견해마저도 여전히 확실성을 담보하는 주장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견해를 부정할 만한 근거도 역시 없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가장 개연성 있는 이 시기를 출현시기로 간주한다.

11) 출현 시기를 문제로 삼는 것은 여장군이 등장하는 중국 소설들 가운데서도 배제할 필요가 있는 작품을 선택하기 위해서이다. 예컨대 <兒女英雄傳>은 光緒 4년(1878)에 나온 것이라서, 출현 시기가 우리나라 소설들보다 앞설 것 같지 않다. 또 여장군이 직접 출전하여 대장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도 아니다. <蘭花夢奇傳>은 중국의 다른 소설들과는 달리 여장군이 남장을 하는 모티프가 등장하고 있어 우리나라 여장군소설과 아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光緒 31년(1905)에 나온 작품이라서, 우리나라의 초기 여장군소설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런 이유로는 명백히 19세기 초반 이전에 나온 중국의 문헌들만을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

과 서사의 구조적인 측면도 언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언급해야 할 사안 이외에는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인물과 여장군소설 개별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일 대 일로 대응시켜서 설명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여장군소설들에 형상화된 인물의 성격과 행동이 매우 유형적이라서 유사한 점을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중국 역사서 속의 여장군 형상과 여장군소설

조선조의 사대부들이 중국에서 일어났던 각종 사건과 실존 인물들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 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중국에 실존했던 인물과 그들의 행적이 世代小說¹²⁾과 같은 작품들의 소재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여장군소설에도 중국 여성들의 행적이 녹아들어 있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이런 발상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선 중국의 사서에 기록된 여장군들을 검토하고, 그들의 행적이 여장군소설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다음은 그런 논의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실마리로 삼기에 알맞은 글이다.

여자로서 제후에 봉해진 자는 한나라의 허부와 여수이다. 여시중(女侍中)은 위나라 원의의 처 호씨이다. 여상서(女尙書)는 위나라 명제가 지서 중에서 뽑았는데 여자가 되었다. 여학사(女學士)는 당나라 덕종 때에 송씨의 다섯 딸인 약신, 약소, 약화, 약륜, 약현이다. 여박사(女博士)는 송나라 효무제

12) 나는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문학사적인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전소설에서 이른바 가문소설이라고 부르는 소설들과 현대소설에서 가족사소설로 분류되는 소설들에서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한 후, 이들을 아우르는 하위 장르 명칭으로 世代小說 *Generation Novel*을 제안한 바 있다. 조용호, 『세대소설론』, 이수봉 외,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 II』, 경인문화사, 1999, 355~384쪽.

때의 한난영이다. 여교서(女校書)는 설도이다. 여진사(女進仕)는 송나라 임묘옥이다. 어린 여자로 응시집정(應試執政)이 된 자는 제나라 육태희이다. 여자로서 과거를 관장한 자는 당나라의 상관 완아이다. 사서를 지은 자는 한나라 조대가이다. 군대를 거느린 자는 당나라의 평양공주와 세부인이다. 정체를 감추고 남자가 된 자는 제나라의 양주녹사 누영, 당나라 소의군병마사 석씨, 삭방병마사 맹씨, 사호참군 황승하이다.¹³⁾

인용문은 이수광의 『芝峯類說』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실제로 문무의 여러 벼슬에 보임되었던 중국 여성들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 여장군소설의 주인공들이 거치는 문무의 벼슬들이 오로지 상상 속에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실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여장군소설의 창작 동인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셈이다.¹⁴⁾

거론된 인물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여장군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은 平陽公主와 洗夫人이다. 『舊唐書』와 『新唐書』에는 모두 평양공주의 열전이 실려 있는데, 『구당서』에서는 남편인 柴紹와 함께 입전되었고 『신당서』

13) 李暉光, 『芝峯類說』 권 15, 人物部-婦人. 女子封侯者 漢許負呂嬃 女侍中者 魏元義妻胡氏 女尙書者 魏明帝選知書女子爲之 女學士者 唐德宗朝宋氏五女 若莘若昭 若華 若倫 若憲 女博士者 宋孝武朝韓蘭英 女校書者薛濤 女進仕者 宋林妙玉 以女童應試執政者 齊陸太姬 掌制者 唐上官婉兒 作史者 漢曹大家 主兵者 唐平陽公主 洗婦人 詐爲男子 齊楊州錄事婁暹 唐昭義軍兵馬使石氏 朔方兵馬使孟氏 司戶參軍黃崇嘏

14) 남성 사대부들만이 여장군들에 관심을 가졌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규합총서』에도 다음과 같이 여장군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당평양공주 설부인 송양칠녀 창포김녀’ 憑虛閣 李氏, 『閨閣叢書』 鄭良婉 家藏 本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년, 430쪽. 거론된 이름들 가운데 설부인은 <설정산정서>에 나오는 번리화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송양 칠녀와 창포 김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역으로 여성들을 포함해서 조선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국의 여장군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에서는 여러 공주들과 함께 입전되었다.¹⁵⁾ 이 기록들에 의하면 평양공주는 당나라 고조의 셋째 딸로, 아버지 李淵이 수나라에 반기를 들었을 때 함께 기병했다. 그녀는 독자적으로 군사를 모으고 세를 키워 가서 娘子軍이라 불리는 7만의 대군을 거느리기도 하였다. 그 기세로 남편 및 아버지가 거느린 군대와 함께 3면에서 수나라 서울을 포위하였고, 중국에는 수나라를 무너뜨리고 당나라를 건국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녀가 죽어 장례를 치를 때 고조황제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적이 탁월한 장수의 장례에서나 베풀어주는 軍樂을 쓰도록 명하였다. 공주가 직접 대장으로 활약했고 건국에 막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세부인은 남북조시대에 梁나라에서 태어나 陳나라를 거쳐 隋나라에 이르기까지 90여 년을 살면서 혁혁한 공적을 쌓고 사후에는 誠敬夫人이란 시호를 받은 여성이다. 『資治通鑒』, 『隋書』, 『北史』 등에는 세부인의 업적에 관한 기록이 적잖이 나온다.¹⁶⁾ 역사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세부인은 한결같이 백성들의 요구와 바람을 따르고자 했고, 지방에 할거하여 세

15) 『舊唐書』 권 62, 『列傳』 제8 및 『新唐書』 권 96, 『열전』 제8 참조. 『구당서』의 경우 건국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남편과 함께 입전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후대의 사가들이 평양공주의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16) 세부인의 사적은 『자치통감』의 『梁紀』, 『陳紀』, 『隋紀』에 연달아 등장하고 『隋書』 권 80, 『列傳』 제45와 『北史』 권 91, 『列傳』 제79에도 그녀의 업적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근래에 그녀를 소개한 어느 중국인 블로그의 글에는 그녀가 ‘자못 남아의 기개가 있었다. 후에 이인이 전해준 무예도락을 얻어 활을 잘 쏘았을 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움직이고 진을 치는 법에 정통했으며, 지략이 뛰어났다(頗有男兒氣概 後又得異人傳授武藝韜略 不但能挽弓射箭 更深諳行軍布陣之法 善于謀略)’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http://www.51140.com/view/4564.shtml> 참조. 이 블로그의 글은 문장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의 글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거나 어딘가에서 인용한 것 같은데, 위에서 거론한 중국의 사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력을 키우는 무리를 제거하고 탐관오리를 징치하였으며, 문무를 겸비한 남성들이 모두 욕망하는 사환의 이상인 출장입상을 실현한 여성이었다. 이런 사실 때문에 당나라 이래로 중국의 여러 문인들이 그녀를 칭송하는 시문을 짓기도 하였고,¹⁷⁾ 근래에도 중국의 정치가들 사이에서 계속 칭송되고 있다.¹⁸⁾

평양공주와 세부인에게서 보이는 장수로서의 형상은 여장군소설을 읽은 독자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¹⁹⁾ 평양공주가 여성으로서 중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적이 뛰어난 무장이 누리는 장사의 예우를 받은 것은 <방한립전>에서 천자가 죽은 방관주를 장사지낼 때 모든 범구를 남장에

17) 그 중에 하나가 소동파인데, 그가 지은 시는 『東坡續集』 권3, <和擬古 九首>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馮洗古烈婦, 翁媪國于茲. 策勛梁武後, 開府隋文時. 三世更險易, 一心無磷緇. 錦繖平積亂, 犀渠破餘疑. 廟貌空復存, 碑板漫無辭. 我欲作銘志, 慰此父老思. 遺民不可問, 儂句莫余欺. 釋牲菌雞卜, 我當一訪之. 銅鼓壺盧笙, 歌此迎送詩. 번역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풍씨 가문의 세부인은 옛 열부로 / 지금껏 나라를 빛낸 여장부로 유명하다네. // 양나라 무제를 도와 공을 세운 뒤 / 수나라 문제 때는 총관이 되었네. // 세 왕조를 섬기며 어려운 일을 겪었으나 / 한결 같은 마음으로 불평 한번 없었네. // 군막 아래서 여러 번 병란을 평정했으며 / 갑옷을 걸치고 의심스런 무리를 격파했네. // 묘당은 텅 빈 채로 아직도 남아 있으나 / 비문과 현판은 흩어져 쓸 만한 글이 없네. // 내가 이제 그를 위한 글을 지어 / 이 어른을 위무하려 하네. // 유민이 있는지는 물을 수 없으나 / 거짓으로 날 속이지는 마소서. // 들소와 닭 뼈로 점을 치고 / 내 마땅히 한 번은 찾으리라. // 구리 북과 생황을 연주하며 / 노래 불러 맞이하고 시 지어 보내드리리.

18) 여러 블로그에 세부인을 일컬어 ‘중국 제일의 巾幗英雄’이라고 평했다는 주은래의 칭송과 강택민의 언급도 신문 기사 등을 인용하여 첨부해 놓았다.

19) 실제로 소설에도 평양공주의 이름과 행적이 등장하여 그런 생각이 근거를 제공한다. <음양삼태성>에서 유원경의 세 딸인 紫珠·碧珠·明珠 등은 7~8세부터 무예를 연습하는데, 아버지가 이를 꾸짖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히아 등이 잠깐 부모를 어긋여 너희를 직회지 아니하고 남스를 힘껏스오니 넉적 당티종의 누의 장원공쥬가 평싱에 병셔를 익히고 무예를 연습하야 텃헝에 횡헝하니 세인이 일으기를 녀장군이라 하야 영명이 후세에 유전하니 쇼녀 등도 석스를 본바다 공명을 일위 호턴티은을 잡고 저 하나니 ……” 여기에서 밀줄 친 ‘장원공쥬’는 평양공주의 오인이다.

준하여 거행하게 한 사실과 대응된다. 또 세부인이 일생 동안 보여준 모습은 여장군소설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행태와 매우 흡사하다. 異人에게서 『武藝韜略』을 받았고 병법과 지략이 뛰어났다는 세부인에 대한 어느 중국인 블로거의 언급이 사서의 기록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그것은 많은 여장군소설의 주인공이 이인이나 도사의 도움을 받아 무예와 병법을 습득하는 과정이 어디에서부터 유래했는지 추정케 하는 방증으로 거론될 만하다.²⁰⁾

인용문에 거론된 인물들 가운데 장수로서 활약한 평양공주와 세부인을 제외한다면, 여성으로서의 정체를 감추고 남자로 행세하며 산 사람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장군소설 주인공들 가운데 다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²¹⁾ 이수광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소의군병마사 석씨와 삭방병마사 맹씨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었지만, 누영과 황송하는 그 존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²²⁾ 그 가운데 누영에 관한 기록²³⁾

20) 물론 중국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장군들은 도사나 이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 일이 더욱 노골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역사상의 실제 인물이 우리 여장군소설 주인공의 직접적인 모델이 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설은 중국 소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 소설들에 채용된 그 모티프는 또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기원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우리나라 소설에 등장하는 그 모티프의 시원은 중국의 역사적 인물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21) 여장군소설에서 女化爲男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장시광이 이미 논의한 바가 있다. 그는 이 모티프가 여성의 자아실현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출세한 남성을 선망하여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구현한 것이라고 보았다.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女化爲男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집, 2001, 301~338쪽.

22) 앞서 이수광이 기록한 내용은 1635년에 태어나 대략 17세기 후반까지는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 褚人獲이 쓴 『堅瓠廣集』 권1에 더 자세하게 나온다. 체제를 바서는 이수광과 저인획이 모두 하나의 자료를 인용했는데, 저인획은 이수광보다 더 많은 인물을 적어 넣었고 명나라 말기에 활약한 인물들까지 첨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인용한 원본은 찾지 못했고 언급된 인물들도 모두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저인획이 기록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女子爲女官妻 女侍中 後魏元義妻胡氏 一作女常侍

은 여장한 사실이 발각되어 신세를 한탄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그다지 특기할 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황송하에 관한 기사는 여장군소설과 관련 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황송하는 임공 사람이다. 부친이 일찍이 촉에서 사군 벼슬을 하였는데, 그녀는 어릴 적부터 좋은 교육을 받아 시에 빼어나고 문장을 잘 하였으며 바둑 거문고 글씨 그림에 어느 하나도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12세에 부모가 서로 이어서 돌아갔는데, 가정환경이 빈한하였으므로 늙은 보모와 서로 의지하며 생계를 이었다. 성년이 된 후에는 항상 남장을 하고 사방으로 유람하였다. 당나라 희종 문덕 원년에 현의 성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녀는 우연히 남장을 한 채 고향으로부터 성으로 오다가 방화범이라는 무고를 당했다. 지현이 파견한 사람이 잡아가니 지주인 주상이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그녀는 주상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시를 써 보내 건식을 인정받고 풀려나게 되었다. 그 뒤에 주상이 누차 추천하여 사호참군이란 벼슬을 하게 되었다.

齊高岳母山氏 趙彥深母傅氏 南漢官人盧瓊仙 黃瓊芝 女尚書 魏明帝選知書女子爲之 使典外奏 女學士 陳後主時宮人袁大捨等 唐德宗朝貝州宋延芳五女 若莘一作草 若昭若華 若倫 若憲 明孝宗朝 沈瓊蓮 女博士 宋孝武朝吳郡韓蘭英 女進士 宋孝宗時林幼玉 明武宗時林妙玉 皆以女童應試 詔賜女進士 女山人 孟光 明初女官 亦有名號 識小編 載洪武元年冬 封范氏謹眞爲孺人 與六品誥命 女子爲將軍者 晉瑯琊王廙起兵 以己女爲貞烈將軍 悉以女人爲官屬 以顧琛母孔氏爲軍司馬 時年已百餘 尚能執堅破陣 又唐行營節度許叔冀 以衛州女子侯氏 滑州女子唐氏 青州女子王氏 歃血赴義 奏授爲果毅將軍 陳女白頸鴉 爲契丹懷化將軍 侍夫數十人 金史 載繡旗女將與李全戰者 明嘉靖中 廣西女土官瓦氏率兵來吳 援倭寇 天啓中石碣土司女官秦良玉勤王 他如柴紹妻平陽公主 崔寧妾浣花 任夫人 又不足異也 女子詐爲男子而有官位者 南齊時東陽婁逞能基 解文義 變丈夫服 仕至揚州議曹錄事 商丘木蘭代父從征 以功還 除尚書不受 唐昭義軍兵馬使國子祭酒石氏 張察妻 朔方兵馬使御史大夫孟氏 蜀女狀元 司戶參軍黃崇嘏 明初保寧韓氏 從征雲南 往返七年 人無知者

- 23) 南齊東陽女子婁逞 變服詐爲丈夫 粗會棋博 解文義 游公卿門 仕至揚州從事而事泄 明帝令東還 始作婦人服 嘆曰 有如此伎 還爲老嫗 豈不惜哉 인터넷주소 <http://baike.baidu.com/view/410627.htm>에서 재인용.

주상은 또 자기 딸을 황송하에게 시집보내려고 하였는데, 황송하는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써서 여성임을 밝히고 사직하였다. 고향에 돌아온 뒤에는 분수를 지키며 가난하게 살다가 삶을 마쳤다. 황송하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설이 있는데, 그녀가 일찍이 형을 대신하여 시험을 치러 장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에 그녀는 여장원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갖게 되었다.²⁴⁾

황송하의 행적을 간략히 기록한 위의 인용문은 5대 10국의 역사인 『十國春秋』 중 「前蜀」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여장군소설과 관련하여 이 기록이 시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남장을 한 채 오빠를 대신하여 시험을 쳐서 장원이 되었다는 설의 존재와, 지현인 주상이 사위를 삼으려 하자 불가피하게 여성으로서의 정체를 밝히고 벼슬에서 불려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건 때문이다. 여장군소설에서 거개의 주인공은 자신의 의지이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건 간에 남장을 한다. 그로 인해 남성과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고, 이미 타계한(혹은 유배된) 부친의 아들이라고 속여 장원급제한 뒤 출세하는 경로를 밟는다. 그들 가운데는 부마의 물망에 오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 때문에 대개는 여성이라는 정체를 드러내고 다른 남성과 혼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여장군소설에 등장하는 이러한 모티프는 모두 황송하의 행적과 부합한다. 결국 여장군소설의 주인공 형상은 밀도 끝도 없이 생겨난 파천

24) 黃崇嘏 臨邛人 父親曾在蜀中任使君 她自幼受到良好教育 工詩善文 琴棋書畫 無一不精 十二歲父母亡故 后家境清寒 與老保姆相依爲生 成年后常女扮男裝 四處處遊歷 唐僖宗文德元年 有一次縣城發生大火災 她正以男裝偶從鄉間來城 路經現場被誣爲縱火人誣 由知縣縣人押送到州里 知州周庠令系獄中 寫詩向知州周庠辯冤 得其賞識 獄釋後 經周庠推舉 代理司戶參軍一職 周庠又欲將其女嫁予黃崇嘏爲妻 黃無奈修書一封 表明女身 并向周庠辭職 歸鄉後 守貧而終 終關於黃崇嘏身世 又有其曾代兄考中壯元一說 故其素有女壯元之美稱 이상의 기록은 인터넷주소 <http://baike.baidu.com/view/903754.htm>에서 재인용함.

황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상상력을 촉발시킬 만한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에 둔 상태에서 생겨난 것이라 하겠다.

여장군 가운데는 『지봉유설』이 편찬된 이후에 활약한 명말청초의 인물들이 있다. 그 가운데 대표자격인 秦良玉은 『明史』에 입전되어 있다. 우리나라 문헌에도 당시의 중국 여장군들이 나오는데, 1795년 李德懋가 지은 『靑莊館全書』에 沈雲英, 岑太君이 있다. 또 1840년 경에 成海應이 정리한 『研經齋全集』에는 심운영, 잠태군, 진양옥의 행적이 모두 실려 있다.²⁵⁾ 『연경재전집』의 기록은 중국의 전적에서 전사했거나 축약해서 실은 것으로 보여, 지식의 확산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정도 이외에는 특별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다. 『청장관전서』에 나오는 심운영과 잠태군에 관한 기록²⁶⁾은, 이덕무가 기사의 말미에 첨기한 내용을 토대로 각각 청나라 毛奇齡(1623~1716)의 『西河集』과 陳鼎(1650~?)의 『留溪外傳』에서 인용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심운영과 잠태군은 모두 무예에 정통했고, 부친(심운영의 경우)이나 남편(잠태군의 경우)이 청군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죽자 적이 가져간 시신을 탈취해 오거나(심운영의 경우) 시신을 몰래 등에 짊어지고 성을 탈출(잠태군의 경우)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두 사람에 관한 기록 속에는 여장군소설의 형성에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행적이 거의 없다. 다만 심운영의 경우는 남편이 청군과의 싸움에서 전사하자 죽으려고 물에 투신했던 적이 있어서, 여장군소설의 주인공들이 어려서 적당에게 쫓기다가 투신하는 모티프에 영감을 주었을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²⁷⁾ 잠태군에 관한 기록에 있는 ‘쌍

25) 成海應, 『研經齋全集』 권 43, 『皇明遺民傳』 7.

26)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 45, 『磊磊落落書』 10.

27) 그러나 투신 모티프는 적어도 18세기 초에는 출현했을 것으로 보이는 <숙향전>에도

칼을 들고 추는 검무를 잘 했고, 30보 밖에서 몸을 날려 사람의 목을 벨 수 있었다²⁸⁾는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황장군전>에서 승상 진권이 반란을 일으킨 뒤 근왕병을 초모할 때, 여장군인 설연(설월충대)이 응하여 천자 앞에서 ‘갑주를 갖춘 후 좌수에 창을 들고 우수에 보검을 들고 천리 말을 퍽보 받게 세우고 몸을 날여 말기 안지며 창을 좌우로 춤추고 말을 동서로 치빙하야 지조를 비양하²⁹⁾는 장면과 연결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과 달리 진양옥의 행적은 사서에 자세하게 실려 있다. 기록에 의하면 진양옥은 남편인 馬千乘이 중국 서남부 지역인 播州로 출정했을 때 별도로 군사 5백을 거느리고 따라가서 명군을 기습한 적장을 베는 공을 세웠고, 남편이 옥사한 뒤에는 남편의 벼슬을 이어 받았다. 1620년에 요동을 정벌할 때는 3품의 벼슬로 오빠 및 남동생과 함께 출정하여 공을 세우고 2품으로 승진했으며, 이를 틈타 泗川에서 奢崇明이 반란을 일으키고 成都를 포위하자 즉각 북쪽에서 돌아와 남정에 나섰다. 후금이 침략했을 때는 조카와 함께 근왕을 했고, 황명으로 집에 돌아와 있다가 촉망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다시 출정하였다. 사천에서 張獻忠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출정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다.³⁰⁾ 진양옥은 오빠와 동생이 모두 전장에 나아가 죽었고 조카와 자식들도 모두 명나라를 위해 투신한 위국 충절과 멸사봉공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후대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만하다.

진양옥의 행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세 가지 정도이다. 첫째는

나와 있는 것이라서, 심운영의 행적이 여장군소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마쳤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28) 『연경재전집』 권 43, 『황명유민전』 7.

29) <黃將軍傳> 제4회, 東美書市 刊, 1916, 24쪽.

30) 『明史』 권 270, 『列傳』 제158 참조.

‘그의 사람됨이 담력과 지략이 뛰어났고,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는데다가 문학에도 두루 통했으며, 거동과 제도는 우아했으나 아랫사람을 부리는 데는 엄격했고, 늘 행군할 때마다 명령을 내리면 대오가 숙연하였다’³¹⁾는 것이다. 두 번째는 羅汝才가 夔州(현 중경)에서 반란을 일으켜 토벌할 때 사천진무사인 邵捷春이 布陣을 잘못하자 이를 우회적으로 지적하여 바로잡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근왕을 했다가 벼슬을 내놓고 귀향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란이 일어나자 즉각 다시 출전했다는 것이다. 첫 번째 것은 여장군소설의 주인공들의 평소 몸가짐 및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할 때 보여주는 위엄과 흡사하다. 두 번째 것은 남성을 능가하는 여장군의 군사작전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봉빈전>에서 운기와 결혼한 이봉빈이 출정하는 남편에게 도적을 토벌하는 계책과 장수의 도리를 알려주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세 번째 것은 <홍계월전>에서 평국(홍계월)이 보국과 결혼하여 가정에 들어와 있다가 吳楚가 침입하자 대원수로 다시 출전하여 공을 세우는 것과 같다. 여장군소설의 모든 주인공들은 전란이 일어났을 때 몸을 사리지 않고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점에서, 역사적 인물 진양옥이 보여준 멸사봉공의 행적과 전혀 차이가 없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의 행적은 여장군소설의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유사한 점이 곳곳에 보인다. 이는 여장군소설의 형성에 중국의 역사적 실존 인물들의 행적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케 하는 단서이다. 소설이 사실과 허구, 경험과 상상을 교직하여 짜낸 정신적 구조물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사실과 경험으로서의 역사적 인물이 여장군소설의 형성에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다.

31) 『明史』 위와 같은 곳. 良玉爲人饒膽智 善騎射 兼通詞翰 儀度嫺雅 而馭下嚴峻 每行軍發令 戎伍肅然

3. 중국 소설 속의 여장군 형상과 여장군소설

여장군소설 중에는 중국 소설로부터 받은 영향의 흔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다음이 그런 경우이다.

元老言曰 向者西征時에 請援之馬將軍이 卽聞非男子也라하니 果然乎 잇가 曰然호이다 元老曰 此豈非女子中英雄이리오 馬是女子則無從嫁之意乎아 尙書曰 渠雖女子나 既有英雄之品格호니 安能有區區屑屑之態乎 잇가 元老ㅣ曰 古之祝融夫人은 雖南蠻人이나 有絕世英雄之材略이라 猶爲嫁于蠻王호야 出則斬將擐旗호고 入則生男生女호니 此는 得天倫之正理호고 諧人道之英材어늘 以一女子之雄稱而不嫁면 比之於祝融夫人인 된 豈不爲罪人乎아³²⁾

인용문은 白雲山人이 여장군소설 <이형경전(이학사전)>을 국문현토 한문본 소설로 개작하여 1906년에 『대한일보』에 연재한 <女英雄>의 일부이다. 인물들 간의 대화에는 밑줄 친 것처럼 祝融夫人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녀는 <三國演義> 제90회에서 제갈량에게 七縱七擒을 당했던 孟獲의 부인으로 나온다. 그녀는 <삼국연의>에 아주 단편적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실존 여부도 확실치 않은 인물이다. 하지만 그녀를 지칭하는 ‘有絕世英雄之材略’과 ‘出則斬將擐旗호고 入則生男生女’한 행적은 여장군소설 주인공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여장군소설 주인공의 형상화에 중국 소설의 여장군들도 역할 모델로 동원되었음을 추정케 하는 단서이다.³³⁾

32) 白雲山人, <여영웅>, 『대한일보』, 제71회분(1906. 7. 4). 조용호 역, 『여영웅-바다로 나간 최초의 여성영웅 이야기』, 민속원, 2012, 284쪽.

33) <백학선전>에서도 황제가 조은하의 검술을 본 뒤 찬탄하면서 ‘삼국시대의 충음부인이라도 이 남자의 재주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 정남대원수를 삼는 부분이 있다.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언급해야 할 작품은 <설인귀전> 연작이다. 여장군소설이 <설인귀전>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그러나 실상 조선시대에 번안된 <설인귀전>은 그 작품의 원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발췌·축약하여 번안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모방이나 영향 관계를 논하자면 그 번안작이 아니라 원작을 논하는 것이 옳다. 번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원작이 들어와 읽혔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한국 소설이 영향을 받았을 모본을 거론하자면 당연히 번안작보다는 원작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작(<설인귀전> 연작) → 번안작(<설인귀전>) → 모방작(여장군소설)으로 연결되는 순서를 거쳐서 여장군소설이 지어졌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기계적이다.

<설인귀전>은 18세기 사람으로 알려진 如蓮居士가 지은 3부작의 장편소설을 통칭한다. <薛仁貴征東>, <薛丁山征西>, <薛剛反唐>이 그것이다. 연작의 첫 번째인 <薛仁貴征東>은 여장군소설과 무관하고 나머지 두 작품이 여장군소설과 관련된다. <薛丁山征西>는 설인귀의 아들인 설정산과 그의 부인이 된 樊梨花가 중심이 되어 서번 원정이라는 중심 서사를 주도하는 작품이다. 원정에서 돌아온 뒤 정산의 아들 薛剛이 측천무후의 총신 張君左의 아들 張保를 때려죽인 일로 설문의 300여 인이 몰살을 당한다. 같은 사건을 담고 있는 <薛剛反唐>에서는 참살을 겪는 원인이 조금 달라져서, 설강이 대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자신을 잡으러 온 황자 李昭의 낭심을 걸어 차 죽이고, 이 소식을 들은 고종이 놀라 쓸개가 터져 승하하게 된 사건 때문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에는 그 사건 이후 몰살된 가문구성원들 가운데 살아남은 설강과 몇몇 자제들이 중심이 되어 측천무후에게 반기를 들고, 황자 李杻를 옹립하여 다시 당나라를 재건하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는 내용이 그려져 있다.

여장군소설 주인공의 형상화와 관련해서 보자면, 세 편 가운데 <설정산정서>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는 설정산의 여동생인 薛金蓮 등 여러 여장군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단연 번리화이다. 그녀는 무예가 출중하여 설정산과 싸우다가 그 용모에 반하여 세 번이나 사로잡혔다가 놓아주었으며, 설정산과 결혼하려고 반대하는 아버지와 다투다가 무심결에 부친을 찔러 죽인 뒤 오빠까지도 죽이고 가출하여 끝내 설정산과 결혼에 성공한다.³⁴⁾ 그녀는 도술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소설의 중반부터는 설정산을 대신하여 원수가 되어 군사를 지휘하는 실질적 주인공이 된다.

<설정산정서>에서 번리화가 남편을 대신하여 원수가 되는 것처럼, 장차 남편이 될 남성을 휘하에 두고 아내가 될 여성이 원수가 되어 전쟁을 지휘하는 것은 여장군소설에서 매우 낮은 소재이다. 이것은 여장군소설의 주인공 형상이 일정 부분 번리화의 행적을 모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적지 않다. 번리화는 설정산과 싸우다가 반하여 부친과 오빠를 죽이면서까지 설정산과 결혼하는 집념의 여인이다. 진중에서 결혼한 번리화는 만식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적과 직접 사생을 건 대결을 펼치며, 싸우는 도중에 진통을 느껴서 얼른 피해 출산을 하기도 한다.³⁵⁾ 그런데 번리화의 이런 행위는 조선조 사람들의 윤리와 상식에서 심하게 벗어난다. 그래서 여장군소설의 작가들은 번리화를 그대

34) <설정산정서> 제29회의 ‘神鞭打走陳金定 梨花仙法捉丁山’, 제30회의 ‘樊梨花移山倒海 三擒三放薛丁山’, 제31회의 ‘樊梨花無心殺父 小妹子有意誅兄’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

35) 그러나 사실 전투 중 출산하는 모티프는 <楊家將演義>의 핵심 인물인 楊延昭의 부인 柴太郡계서 절정을 이룬다. 그녀는 적진을 깨뜨리는 과정 중에 말 위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이다(37회). 熊大木, <楊家將演義>, 天津古籍出版社, 2005, 180쪽.

로 닳은 주인공을 형상화하지 못하고, 현실성 있는 안전한 서사 전개로 변개하는 방식을 택했을 것이다. 여장군소설에서 도원수가 나중에 여성으로서의 정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고, 결국은 부원수로 출정했던 인물 혹은 천정인연인 남성과 결혼하도록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래도 번리화의 그런 행적은 여장군소설에 흐릿하게나마 흔적을 남겼다. <황장군전>이 그런 사례이다. 이 작품에서 승상인 황운은 황제가 승하하자 황명으로 4세인 태자를 위해 섭정을 하는데, 어린 황제의 숙부인 형왕이 반심을 품고 남만과 흉노를 끌어들이어 전쟁을 일으켰다. 이때 황운은 남만의 침략을 막으려 남으로 출정하고, 그의 부인인 설연은 흉노를 막으려 북쪽으로 출정한다. 이별하는 자리에서 설연은 황운에게 ‘첩이 녀즈의 몸이 국은이 망극하니 엇지 죽기를 스양하리잇가 북적이 비록 강성하나 초히 두렵지 아니하디 다만 첩이 회잉이 삼삭이라 만일 전장에서 수히 도라오지 못하고 군중에서 히만홀가 넘너로쇼이다’³⁶⁾라고 말한다. 임신한 몸으로 멀리 출정하게 되어, 혹시 원정길에 해산을 할까 걱정을 하는 말이다. 물론 <황장군전>은 <설정산정서>와 다른 방식으로 서사를 진행하여, 진중에서 해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여장군소설 가운데 <황장군전>은 <설강반당>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사례의 하나로 어린 태자를 구출하여 보호하다가 나중에 황제로 등극시키는 사건을 들 수 있다. 훗날 측천무후가 되는 武昭義는 고종의 병환이 깊어지자 국정을 농단하고 황후를 폐위한다. 폐위된 황후가 태자를 낳자 무소외는 掌宮太監 杜回를 시켜 그 모자를 암살하게 하는데, 두회는 태자를 몰래 빼돌려 江夏王 李開芳에게 맡긴다(제5회). 한편 설문이 모두 참살을 당하게 되자, 江淮侯 李敬猷는 자신의 아들 孝思

36) <黃將軍傳> 제11회, 앞의 책, 68쪽.

와 설정산의 손자이자 薛猛의 아들인 蛟를 바꿔치기 하여 살려낸다(16회). 이 두 사건은 <설강반당>의 전체 서사를 이끌어가는 실마리가 되는데, 이 사건들은 <황장군전>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된다. 황제가 붕어하고 황운이 섭정을 하는 데 불만을 품은 황숙 형왕이 황위를 찬탈한 사건과 관련되어서이다. 황제가 바뀌자 선황의 태자가 위태롭다고 생각한 황운은 소년 도사의 지시에 따라 태자의 사촌 누나인 심원공주에게 도움을 청하고, 공주는 태자와 한 날 한 시에 태어난 그녀의 아들을 바꿔치기 하게 하여 중국에는 황제에 오르게 한다. <황장군전>은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송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발상의 토대는 <설강반당>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황장군전>은 다른 여장군소설들보다 상대적으로 길이가 길 뿐만 아니라, 중반부터는 황제가 붕어한 후 발생한 반란 그리고 다시 황실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과 전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것은 <설강반당>에서 측천무후를 반대하는 황친과 옛 공신들이 기병하여 당나라를 중흥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과 전투가 중심 서사를 형성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때도 설강의 부인인 紀鸞英을 비롯한 여장군들의 활약이 펼쳐지고, 또 설문이 멸족할 때 도인인 스승에 의해 구출되어 선계로 들어갔던 번리화가 다시 등장하기도 한다. <설강반당>에서도 번리화는 남편인 설정산보다도 중요한 존재가 되는데, 이것도 여장군소설 여러 작품에서 여성의 능력이 남성을 능가하는 것과 유사하다.

여장군소설에서는 주인공 여성이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그녀와 혼사를 맺으려는 권력자의 핍박과 모해가 자주 나온다. 그것은 여장군소설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법한 다른 중국 소설들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소재인데, 유독 <설강반당>에는 그런 사건이 제법 길게 나온다. 나중에 예종 황제가 되는 이단은 零落하여 이름을 고치고 떠돌다가 通州에서 문씨 성을 가진 여인이 운영하는 주막집에 숨어 지내게 된다. 여기에서 이단은 그 집의 딸 風嬌와 혼약을 맺는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의 아리따운 용모에 혹한 여러 사람들 때문에 여러 차례 늑혼의 위협에 처하였고, 계속 피신해 다니며 강에 투신하기도 한다(제37~51회). 정식으로 황후에 오르기까지 심하게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혼사장에 모티프는 여장군소설에도 늘 나타난다. 이는 여장군소설의 주인공이 겪는 초년고생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과정에서 풍교가 겪은 고초를 중요한 모델로 참고했기에 생겨난 결과라 하겠다.³⁷⁾

이처럼 <황장군전>의 형성에 <설강반당>의 영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수의 여장군소설들에 두루 작용한 <楊家將演義>³⁸⁾의 영향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적이나 그들이 겪는 사건은 여장군소설에 짙은 자취를 남겼다. 예컨대 여장군소설에 항상 등장하는 악인이자 반동인물의 전형이 된 승상들의 모델과 흡사한 인물로 <양가장연의>의 潘仁美를 들 수 있다. 그는 呼延贊이란 장수가 송 태조에게 귀순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목격된 뒤, 아들

37) 그러나 남녀 간의 혼사에 따르는 장에 모티프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지어진 고전소설들에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어서, 반드시 <설강반당>의 그 사건이 시원이 되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전개시켜갈 수 있었던 여장군소설에서, 주인공 형상화에 그것이 핵심적인 모티프로 등장한다는 점은 둘 사이의 연관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38) <양가장연의>는 50회의 장회체 소설이다. 3대에 걸쳐 양씨 가문의 남녀 장수들이 송나라에 투항하고 전공을 세워 나라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여장군들이 집단적으로 활약하는 중반부가 압권이다. 이 소설에만 고유하게 있는 내용들을 주목해서 보면, 여장군소설에 미친 영향이 다대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소설이 한국의 여장군소설 혹은 영웅소설과 관련하여 언급된 적은 없는 듯하다.

의 복수를 하려고 호연찬에게 독을 써서 죽이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악사를 행한다. 또 楊家의 수장인 楊業을 미워하여 楊家의 인물들을 선봉으로 데리고 출정하여 일부러 죽을 자리에 몰아넣기도 하였으며, 고의로 구원병을 보내지 않아 楊業이 죽도록 방치한 것을 항의하는 그의 아들 楊延嗣를 참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인미의 행적은 여장군소설에서 주인공 혹은 그 배우자의 부친이나 주인공을 모함하여 곤경에 빠뜨리는 반동인물들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그 밖에도 <양가장연의>가 끼친 영향의 흔적은 여러 여장군소설들에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는데,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요나라의 환관 王欽이 중국에 들어와 七王(후에 眞宗皇帝가 되는 황자)의 신임을 얻고 벼슬살이하면서 楊延昭를 사지에 몰아넣기도 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기도 하는 것은,³⁹⁾ <장국진전>에서 달마국의 백원도사가 보낸 이율과 이훈이 명나라 국구인 이부윤의 신임을 얻고 장군이 되어 장국진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차이가 없다. 만 년 묵은 椿木의 정령이 春岩이라는 요나라의 장수로 변하여 송나라를 공격하는 것은,⁴⁰⁾ <황장군전>에서 천 년 묵은 은행나무가 은수재란 木神이 되어 황운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양가의 제3대 인물인 楊宗保가 길을 잃고 찾아 들어간 擎天聖母의 廟堂에서 병서를 얻고 요나라의 진법을 깨뜨릴 수 있는 비법을 터득하게 된 것은,⁴¹⁾ <이대봉전>에서 이대봉이 관운장의 사당에 들어가 청룡도를 얻은 것과 유사하다. 요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황제가 베푼 잔치에 여장들이 모두 참여하고 또 無佞府(楊府)에서 연석을 베풀 때 남녀 장수 20명이 각각 좌우에 나란히 앉아서 즐긴 것은,⁴²⁾ <여영웅>에서 황

39) <양가장연의>, 19~43회.

40) <양가장연의>, 32~38회.

41) <양가장연의>, 34~39회.

제가 이형경이 3차 출정에서 회군하자 주연을 빼풀어 즐긴 뒤 천하의 병마를 6군으로 나누어 左府는 이형경을 중심으로 한 여장들에게 맡기고 右府는 장소를 중심으로 한 남장들에게 맡긴 것과 대응한다.

<양가장연의>가 여장군소설의 모델이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위에 열거한 사례만으로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은 무엇보다도 여장군들의 눈부신 활약상 자체를 뚜렷하게 부각시킨 공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겠다. <양가장연의>에서 여장들의 활약상은 매우 강렬하고 집중도 높게 서술되고 있다.⁴³⁾ 達達國이 森羅國 및 黑水國과 연합하여 20여 만의 군사로 송나라를 침입했을 때, 여장들이 집단적으로 출전하여 대승을 거두는 마지막 48~50회에 그려진 모습이 그것이다.⁴⁴⁾ 적이 침략하자 송나라에서는 양중보를 征西招討使로 삼아 출정시켰는데, 그는 적의 유인 작전에 말려 포위를 당한 채 餓死의 위기에 처한다. 그런데도 조 정에서는 병사를 이끌고 가서 구원할 만한 良將이 없어 고민한다. 그러자 양부에서는 12인의 과부(과부라고 서술되었지만 사실은 과부가 아닌 사람도 섞여 있음)를 포함하여 무려 15인의 여장들이 출전을 자원한다. 진종황제는 周夫人⁴⁵⁾을 상장군으로 삼아 양중보를 구원케 한다. 적장들은 송나라 장수들이 모두 여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깔보다가 죽거나 사로잡

42) <양가장연의>, 39회.

43) <설인귀전>의 경우에도 곳곳에 여장군들이 활약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긴 소설 속에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독자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가장연의>에는 종결부에 여장들만이 집단적으로 출전하여 대승을 거두는 장면이 3회에 걸쳐 서술되고 있어서 집중도가 높고, 독자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될 만큼 선명하고 강렬하게 묘사되고 있어서 전자와 차이가 있다.

44) <양가장연의>, 46~50회. 48회에는 특히 여장군들의 이름과 그들이 잘 쓰는 무기가 나열되고 있다.

45) 양업의 장자 楊淵平의 처이다. 양연평은 태종황제가 幽州에서 요나라 군사에게 포위되어서 부친 양업과 함께 구원하러 갔었고, 고육책에 사용되어 동생 延輝와 함께 전사하였다(16회).

히고 대패를 당한다. 모든 여장들이 뛰어난 활약을 하여 이 전쟁을 가볍게 끝내지만, 그 가운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 양종보의 처 穆桂 英이다. 그녀는 어떤 남장들과 겨루어서도 패한 적이 없었던 여결인데, 특히 활을 잘 쏘아 이 전쟁에서 적장들을 여러 명 죽이는 전공을 세운다. 종결부에서 전쟁을 완승으로 이끈 여장들의 활약상은 독자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줄 만큼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다. <양가장연의>에 등장하는 여장들이 보인 여러 행적은 분명 여장군소설의 작가들이 주인공을 형상화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⁴⁶⁾

4. 맺는 말

한 나라의 문학이 다른 나라의 문학에 끼치는 영향의 방식은 대단히 복잡 미묘한 것이다. 그것은 직접적·구체적·가시적일 수도 있지만, 간접적·추상적·불가시적일 수도 있다. 인물구성이나 서사구조와 같은 거시적인 틀이 통째로 이식되기도 하지만, 세부가 상상력을 촉발시키는 단서로 작용하여 신작의 출현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 선행하는 문헌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성격과 활약상이 후행하는 여러 소설에 분산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한 편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의 성격과 활약상이 후행하는 작품에서 한 인물에게 수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중국의 역사서와 소설에 등장하는 여장들은 이런 방식을 포함하여 여

46) 달달국에 구원병을 보낸 삼라국의 백화공주를 양종보의 동생 楊七姐가 사로잡아(48회) 귀순시켰다가 나중에 양종보의 동생 楊文廣의 배필로 삼는 사건(50회)이 그런 사례이다. 이것은 <장국진전>에서 이계향이 달마국에 구원병을 보낸 대산국 벽산대왕의 공주 일지홍을 사로잡고 귀순시켜 나중에 장국진의 세 번째 부인으로 삼게 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는 <양가장연의>가 여장군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형상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게 하는 단적인 증거이다.

러 모로 여장군소설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 가능성을 사실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나는 중국의 역사서와 소설에 등장하는 여장군의 형상이 여장군소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100% 실증 근거를 확보한 상태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는 아니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또 향후에 내가 확인하지 못한 자료들 중에서 더 깊은 영향을 끼친 것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갑자기 발을 빼는 모양새가 되지만, 이는 결국 현재까지 내가 제시한 자료와 판단 하에서만 앞에서 전개한 논지와 결론이 유효하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해둘 것은 내 논의가 일방적인 중국 문학의 이식론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孤掌難鳴인 것처럼, 내적인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소재가 들어와도 소화해내기 어려운 법이다. 앞의 각주 5)에서 제시한 것처럼 내적인 형성 동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논의도 적지 않다. 하지만 나는 외적 동인을 검토할 때는 더 광범위하게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연장선에서 역사 기록과 <양가장연의>라는 아직 논의된 적이 없는 소설에 주목했다. 적어도 이것은 내 연구가 지닌 독창성이라고 자부한다.

이 작업의 결과로 특히 작가의 문제가 새삼 떠오르게 되었다. 그동안 여장군소설의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해 검토한 논문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런데 작가가 실제로 중국의 역사 기록과 소설로부터 깊은 영감을 받아 창작에 활용했다면, 그는 상당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역사서에 사용된 정통 한문과 소설에 사용된 백화문을 두루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과 상상을 교직하여 소설로 구성해낸 능력을 볼 때, 나는 최소한 상대적으로 고급하고 복잡한 여장군소설의 작가는 지식인이거나 지식인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그 누군가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장군소설의 질적 수준이 천차만별이라서, 모든 작가가 높은 지식을 지닌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⁴⁷⁾ 단지 글 구성력만 뛰어난 사람이 지식수준이 높은 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소설 한 편을 썼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중국의 역사와 소설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기존의 여장군소설을 모방해서 쓴 것도 있을 수 있다.⁴⁸⁾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연구의 핵심 논제가 아니었으므로, 최종적인 결론은 유예한 채 다음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47) 이런 경우는 특정한 여장군소설에 사용된 역사 지식이 터무니없이 왜곡된 데서 갖게 되는 의심이다. 예컨대 내가 중국 소설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본 <황장군전>에는 송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황제의 호나 연호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중국 소설을 모방해서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소재나 모티프들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지식은 매우 무지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다.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건 무지의 소치로 생긴 오류이건 간에, 이는 작가를 추정할 때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것이다.

48) 예컨대 <양주봉전>은 <이대봉전>의 아류작임이 분명한데, 이것은 중국 문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도 선행하는 여장군소설을 모방하여 지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의 작자는 지식인층의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참고문헌

憑虛閣 李氏, 『閨閣叢書』 鄭良婉 家藏 나본 2.

成海應, 『研經齋全集』 권 43, 『皇明遺民傳』 7.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 45, 『磊磊落落書』 10.

李睟光, 『芝峯類說』 권 15, 人物部-婦人.

<김희경전>, <방한림전>, <백학선전>, <여영웅>, <오선기봉>, <옥주호연>, <음양삼태성>, <이대봉전>, <이봉빈전>, <이학사전>, <장국진전>, <정수정전>, <홍계월전>, <황장군전>, <숙향전>

『舊唐書』 권 62, 『列傳』 제8.

『明史』 권 270, 『列傳』 제158.

『北史』 권 91, 『列傳』 제79.

『隋書』 권 80, 『列傳』 제45.

『新唐書』 권 96, 『列傳』 제8.

『資治通鑒』 『梁紀』, 『陳紀』, 『隋紀』.

褚人獲, 『堅瓠廣集』 권1.

羅關中, <三國演義>

<木蘭辭>

蘇軾, 『東坡續集』 권3, <和擬古 九首>

如蓮居士, <薛仁貴征東>

如蓮居士, <薛丁山征西>

如蓮居士, <薛剛反唐>

熊大木, <楊家將演義>

인터넷주소 <http://www.51140.com/view/4564.shtml>

인터넷주소 <http://baike.baidu.com/view/410627.htm>

인터넷주소 <http://baike.baidu.com/view/903754.htm>

강봉근, 『여성영웅소설의 출현동인 일고찰』, 『素石 李奇雨先生 화갑기념논총』, 1986, 355~373쪽.

곽정식, 『여성영웅소설 출현의 사회적 요인에 대한 管見』, 경성대, 『인문과학논총』

- 3집, 2001, 73~87쪽.
-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103~112쪽.
- 박일용,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관련 양상」, 『고전문학연구』 20집, 2001, 169~206쪽.
- 서대석, 「군담소설과 중국소설」,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325~390쪽.
- 성현경, 「여결소설과 『설인귀전』」,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출판부, 1981, 227~279쪽.
- 嚴濟寬, 『中國民族女英雄傳記』, 중경: 商務印書館, 1943.
- 이은경, 「후기 여성영웅소설 연구」, 충북대 석사논문, 1992.
-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女化爲男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집, 2001, 301~338쪽.
-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 연구』, 고려대 출판부, 2002, 1~802쪽.
- 조용호, 「세대소설론」, 이수봉 외,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 II』, 경인문화사, 1999, 355~384쪽.
- _____, 「여영웅-바다로 나간 최초의 여성영웅 이야기」, 민속원, 2012, 1~425쪽.
- _____, 「여장군소설의 개화기적 변화상」,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집, 2011, 237~270쪽.
- 최혜진, 「여성영웅소설의 성립 기반과 규훈 문학」, 『우리말글』 34집, 2005, 243~268쪽.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model of heroines in the female-general novel

Cho, Yong-ho

In many studies about Korean classic novels of female general, *Seol-in-gui-jeon*(《설인귀전》) had considered as a foreign agent for formation of those novels. I thought the novel was not the only agent because several female generals really existed in China and many Chinese classic novels involved female generals as characters. This study was focused on confirming whether those Chinese female generals had affected in formation of Korean female-general novel.

Firstly, I examined female generals represented in Chinese history. I searched Chinese female generals written in records of literary artists of Korea(Chosun). And then I investigated how they acted and what effect they had on Korean female-general novel. As a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the origin of Korean female-general novel was based on the heroic deeds of Princess Pyeong-yang(평양공주), Madam Se(세부인), Jin-yang-ok(진양옥) of China. A motif of woman in man's disguise(especially, Hwang-sung-ha(황승하)) also significantly influenced on representing heroine in Korean female-general novel.

Secondly, I examined female generals' activities in Chinese novels and confirmed that they had become a role-model of the heroine in Korean female-general novel. For example, Beon-ri-hwa(변리화) in *Seol-jeong-san-jeong-seo*(《설정산정서》) was an important role-model who acted as a general, placing her husband under her orders. Including Mok-gye-yeong(목계영), female generals' collective activities in *Yang-ga-jang-yeon-eui*(《양가장연의》) greatly affected in representing main characters in Korean female-general novel.

A series of *Seol-in-gui-jeon* and *Yang-ga-jang-yeon-eui* actually had decisive effect not only on the structure and overall characterization but

also on details. The fact that Chinese records had a great effect on Korean female-general novel must be importantly considered in terms of assuming the author.

Key Words female general, female-general novel, Lee-su-gwang, Lee-deok-mu, Princess Pyeong-yang, Madam Se, Jin-yang-ok, Hwang-sung-ha, *Seol-jung-san-jeong-seo*, *Seol-gang-ban-dang*, *Yang-ga-jang-yeon-eu*,i Beon-ri-hwa, Mok-gye-yeong

논문투고일 : 2014. 9. 25

심사완료일 : 2014. 11. 30

게재확정일 : 2014. 12. 3

